2007 년 10 월
Volume 3, Issue 10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대화의 기도

방 은주 요안나, SFO

요즈음 저에게 기도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예수회 신부님 존 포엘, 주님의 손길이 든 글 본문 중에서 대화의 기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느님 아버지를 압니다. 제가 누구길래 저의 마음을 기도 중에 깊이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니까? 부족하지만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주십시오'하고 기도하면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릴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형제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글이었습니다. 대화의 기도는 하느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느님의 발치 아래 조용히 앉아 하느님 사랑에 포근히 안기면 하느님은 다섯가지 길을 따라 하느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했던 기도의 기본을 묵상하며 해 보았습니다. 전에 부족했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하느님에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에 풍요로운 사랑으로 채워주는 기도의 힘. 존 포엘 신부님은 만약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들 주위에 흐르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의 속삭임도 듣지 못했을거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대화의 기도는 진실과 신뢰 속에 서로서로를 말하고 듣는 사랑의 관계이며 의사전달이라고 하십니다. 신부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의 평화로움이 필요했고 이렇게 미궁을 헤메며 하느님의 부드롭고 풍성한 접근을 했을때 하느님은 신부님을 진정 원하고 신부님 마음에 영원한 한 부분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려움 속에 주님의 손길을 받기만 원하기 때문에 곁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뵐수가 없겠지요. 매일 묵상을 통해 하느님과 대화의 기도로 하느님을 만나 보십시요. 존 포엘 신부님은 명석하시고 재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엄청난 고독과 침묵 속에 예수회 수련을 마치고 사제의 길을 가시며 40 년이란 긴 세월 속에 하느님의 손길을 깨닫기 위해 방황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텅빈 하나의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테는 모든 인간의 갈망은 실상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다 합니다. 형제 자매님, 존 포엘 신부님은 지금도 대화의 기도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노력하면 우리가 우리를 알듯 하느님을 알게 되겠지요. 우리 모두 기도 속에서 하느님과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2007 년 형제적 방문

'들으러 왔습니다'

지난달 23 일 형제적 방문을 위하여 지구형제회장 록 형제, 지구영적보조자 어거스틴 형제, 지구평의원 리디아 자매가 저희 형제회를 찾아주셨습니다. 평의회와 2 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 형제회의 그 동안 활동 상황을 의논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후

주요 날자:

- 11 월 1 일
  모든 성인 대축일
- 11 월 4 일
  Soup Kitchen 봉사
- 11 월 11 일
  성경모임
- 11 월 13 일
  알칼라의 성 디에고 기념
- 11 월 17 일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축일
- 11 월 18 일
  월례회
- 11 월 19 일
  아시시의 성녀 아녜스 기념
- 11 월 22 일
  Thanksgiving
- 11 월 29 일
  세라핌 수도회 모든 성인의 날 축일

다음쪽:

성경모임
지구형제회의 날
한 걸음씩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hwan
@yahoo.com

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되어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록 형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듣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토론을 주제하셨습니다. '새로운 형제가 더 많으면 좋겠다'(레지나), '우리 형제회는 남 다르다'(베로니카), '프란치스칸 영성에 감동받았다'(루피나), '부부 팀이 많아서 좋다'(율리아나), '성숙한 형제들이 많다' (요셉) 등 여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끝으로 록 형제는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단위형제회, 지구형제회, 국가형제회, 국제형제회에 똑같이 소속된 한 가족의 구성원임을 잊지 말라는 부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방문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방문을 가능케 한 모든 형제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성경모임 – 다니엘, 마카베오 상

지난 14 일 성경모임은 명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팔순잔치 마무리를 돕는 여러 분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봉사자 레지나 자매가 없는 가운데 착한(?) 학생들은 놀지않고, 시리아 점령하 박해 받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다니엘서와 헬레니즘과 종교박해에 대한 무력항쟁의 역사를 담은 마카베오 상권을 자습하였습니다.
유대문학사상 최초의 묵시문학서로 알려진 다니엘서는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근본적으로 영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이 지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왕국의 우월성을 주제로 다루며, 안티오쿠스 4 세에게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통한 하느님의 약속을 믿

자습하는 착한 학생들

으며 하느님께 충실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희망의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역할보다 인간적 역할이 강조되는 마카베오서는 헬레니즘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카베오 일족을 찬양하기 위해 씌어졌다고 합니다.

2007 년 지구형제회의 날

20 일 토요일에 성 프란치스코 지구형제회의 날 행사가 Torrance 에 위치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회에서 11 명이 참석하며 오랜만에 만나는 지구의 여러 다른 형제회의 형제들과 반가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7 월 Pittsburgh 에서 열렸던 국가형제회 Quenquennial 에서 발표되어 좋은 반응을 얻은 '복음적 삶을 위한 대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묵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샌디에고 지역의 화재 사태로 평상시보다 많은 손에 묵주가 쥐어졌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 'Rosario'는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이란 뜻이며, 默珠, 혹은 묵주의 기도를 가리키며 구슬이나 나무알을 열 개씩 구분하여 여섯 마디로 엮은 염주형식의 것으로 십자가가 달려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를 묵주의 기도라 합니다. 로사리오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1170~1221)이 선교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여 성모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던 중, 성모님이 나타나서 묵주를 주시고 묵주의 기도를 널리 전하라고 하셨다는 전설, 도미니코회원이 신앙의 진리를 연속하여 설교할 때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합송하였던 설교방식에 유래한다는 설, 12 세기 문맹자들이 전례에서 시편의 구절을 읽는 대신 주의 기도 150 회를 3 부분으로 나누어 암송하던 관습에서 발전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로사리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염경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가장 먼저, 가장 깊은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신 성모를 통하여 그분의 신비를 접근하고 친밀해지며 구원의 신비와 일치하면서 성모처럼 인류 구원의 협조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한 걸음씩